

# 달라스연합교회 / 나눔터 / 목양칼럼

---

[yonhap.org/main/sub.html](http://yonhap.org/main/sub.html)

목양칼럼

> 나눔터 > 목양칼럼

- "휘페레테스, 일꾼의 정체성" (2/7/2021)
- 이요한 | 등록일 : 2021.03.25 | 조회수 : 131 | 추천 : 0

○ 휘페레테스, 일꾼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일꾼”(고전4:1)에서 “일꾼”으로 번역된 “휘페레테스”는 로마 시대의 전투함 아래층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아래”를 말하는 “휘퍼”와 “노 젓는 사람”을 말하는 “페레테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under와 rower를 합쳐서 underrower가 될 것입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벤허가 노예가 되어서 로마 갤리선의 밑창에서 노를 젓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영화를 보면 휘페레테스들은 쇠사슬에 묶여 배밑창에서 노를 저었습니다. 배에 묶인 휘페레테스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전투에 지고 배가 침몰한다면 쇠사슬에 묶인 휘페레테스들은 배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아 수장될 운명입니다. 사는 길이라면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 이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둥둥둥 울리는 북소리를 따라 감독자가 노를 저으려면 명령이 떨어지면 휘페레테스들은 앞으로 노를 젓고, 북소리가 빨라지면 있는 휘페레테스들은 있는 힘을 다해 빨리 노를 젓습니다. 노를 멈추려면 멈춰야 하고, 왼편만 저으라 하면 왼편의 휘페레테스들만 노를 젓습니다. 오른편만 저으라 하면 오른편의 휘페레테스들만 노를 젓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라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전투선의 선장되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노를 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휘페레테스들 사이에 높고 낮을 것이 없습니다. 휘페레테스들은 밖을 보지 못하니 지금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한다고 말할 결정권도 없습니다. 선장의 명령을 듣고 내가 좋으면 노를 젓다가 내가 싫으면 그만 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 따질 것 없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선장되신 그리스도께만 종속된 휘페레테스 바울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시종들 뿐입니다.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이사로 이송되었을 때,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자신을 변론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휘페레테스로 부르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행26:16).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바울을 휘페레테스로 불러 이방인들에게 보내셨고, 바울은 그 명령에 따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수도 없는 고생을 하였지만, 그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판단하든지 상관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휘페레테스의 주인되신 주님의 인정과 시선만을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참 분주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신경쓰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에 우쭐하기도 하지만, 때로 쏟아지는 비난을 받으면 낙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휘페레테스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휘페레테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니까요.

목양실에서 이요한 목사 드림